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이 4일 이대목동병원 개원 2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개원 26주년 “연구중심 중증 종합병원 도약”

경영진·150여명의 교직원 참여
한종인 병원장 “혁신활동 경쟁력 확보”

이대목동병원이 연구중심으로 병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대목동병원은 4일 오전 7시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원 26주년을 맞아 기념식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원 26주년 기념식은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한재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등 경영진과 15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개원 기념식은 장유재 이화여대 교목실장 겸 이화의료원 원목실장의 기도인도와 이화그레이스합창단의 특별찬양을 시작으로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의 기념사와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이날 기념

사를 통해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하며 이대목동병원과 더불어 이화의료원의 양 병원 시대를 여는 등 지난 1년간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이대목동병원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온 결과, 중증 질환 치료 분야에서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증종합병원 재지정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 환경 조성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종인 병원장은 “이 같은 목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을 전인적 의료인력 양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병원, 중증 응급질환, 여성암, 심뇌혈관질환, 노인질환에 강한 중증종합병원, 지역 사회의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효과·안정성 입증”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신약)

환자 127명 대상 유효성·안전성 평가 임상 실험 결과 ‘란셋 온콜로지’ 게재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신약 ‘레이저티닙’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에 4일 게재됐다.

란셋 온콜로지는 대표적인 종양학분야 국제학술지로 국내 초기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 결과가 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이저티닙은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인산화효소억제제(TKI)로, ‘EGFR 유전자에 기존의 다른 EGFR TKI 투여 후 발생한 T790M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이다. 이번 논문에는 임상 1/2상의 용량 증량 및 용량 확대 시험에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집된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레이저티닙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의 크기가 30% 이상 감소해 객관적 반응을 보인 환자의 비율(ORR)은 기존 항암제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의 모든 환자에서 57%였고, 그 중 120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60%까지 높아졌다. 완전 관해에 이른 환자도 3명으로 나타났다.

또 레이저티닙 투여 이후 암이 추가

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기간인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의 모든 환자에서 9.7개월이었고, 그 중 120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12.3개월까지 길어졌다.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발진(여드름 포함), 가려움증이 각각 30%, 27% 비율로 나타났고,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16%, 레이저티닙 투여와 관련성 배제할 수 없는 3등급 이상의 약물이상반응은 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레이저티닙의 안전성 및 내약성이 확인됐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는 “레이저티닙의 초기 임상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만으로 단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며 “종양학 연구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에 국내 초기 개발 신약의 임상 결과가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논문의 교신 저자인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는 “이번 란셋 온콜로지 게재된 레이저티닙의 임상시험 결과는 글로벌 임상 3상의 고부보가 될 것”이라며 “레이저티닙이 향후 전세계 폐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개발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자연의 건강함 그대로... 짓고 먹고 노는공간

리포

매일유업 상하농원을 가다

상하농원은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9만9173㎡(약 3만평) 대지에 자연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한 농촌을 꿈꾸며 조성된 농어촌 테마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창군, 매일유업의 공동 투자로 조성된 상하농원은 2008년 첫 삽을 뜬 이후 8년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공식 개장했다.

‘짓다, 놀다, 먹다’라는 컨셉으로 조성된 상하농원은 장인들이 공들여 건강한 식료품을 만드는 공간인 공방, 방문객들이 직접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실, 자연과 어울려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농장까지 한곳에 어우러져 있는 매력적인 여행 공간이다. 지난해 7월 상하농원은 자연 속에서 팜스테이(농장 체험)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호텔인 ‘파머스빌리지’를 개관했다. 파머스빌리지는 총 3층 높이에 4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객실 타입은 정원 2인의 테라스룸부터 온돌룸, 패밀리룸과 최대 24인까지 수용 가능한 단체룸까지 다양하다.

◆이국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상하농원

지난 주말 서울에서 차로 4시간 달려 도착한 상하농원은 유럽의 아름다운 농원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하농원 내 모든 건물들은 통일된 양식 안에서 서로 다른 느낌과 모습으로 어우러져 있어, ‘자연 속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느낌이었다. 설치미술가인 김범작가가 아트디렉터를 맡았고, 각 건물의 벽돌 하나 조명 하나까지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공을 들였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은 소박함과 자연의 건강함을 표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적 방식을 사용했다. 건물 외관의 컬러, 재질은 물론 창호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농원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고 구성했다. 또한 자연과 잘 어우러진 건축물들은 유럽을



파머스빌리지

/매일유업



상하농원 회관

/박인용 기자

넓아 이국적인 운치를 더했다. 이은선 상하농원 콘텐츠사업부 이사는 “농장 내 길은 자연과 잘 어우러지도록 직선이 아닌 곡선을 살리는 것으로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4개 공방에서 건강한 먹거리 체험하다
상하농원에는 모두 4개(햄·과일·빵·발효)의 공방이 있다. 햄 공방은 고창에서 자라고 해썬 인증을 받은 깨끗한 순 돈육과 안심할 수 있는 원재료만을 사용해 건강한 햄과 소시지를 만드는 공간이다. 과일공방은 엄선된 과일로 만든 수제 잼, 청 등 수제 과일 가공품

다목적 호텔 ‘파머스빌리지’ 개관 공방·참여교실·동물농장 한곳에 농원 디자인 환경친화적으로 구성

을 생산하는 공간이다. 빵 공방은 인공색소와 감미료는 넣지 않고, 상하목장의 63도 저온살균우유와 순백색 동물복지유정란을 사용해, 매일 아침마다 27도의 온도, 75%의 습도 원칙으로 새로운 반죽을 빚어 당일 판매만을 위한 신선한 빵을 만든다. 발효 공방에서는 유기농 콩으로 3년 이상 간수를 빼 천일염 등 믿을 수 있는 100%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된장과 간장은 만든다.

상하농원이 위치한 고창은 국내 최초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청정한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다. 상하농원은 매일 농장에서 재배하거나 고창에서 수확한 건강한 식재료로 빵,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그 과정을 경험하고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시지 체험, 밀크빵 체험, 동물쿠키 체험, 과일모찌 체험(시즌)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상하농원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상하농원에서는 동물 교감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상하농원에 살고 있는 미니 돼지, 면양, 산양, 송아지, 토끼, 닭은 물론 자유롭게 지내는 젓소들에게 직접 다가가 만져볼 수 있으며, 동물들에게 여물주기·우유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농부의 숙소’ 파머스빌리지

상하농원은 지난해 7월 다목적 호텔인 ‘파머스빌리지’를 개관했다. 선운산과 구시포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에 들어섰으며, 외관은 나무 외벽과 크고 작은 자연석 석벽, 곧은 지붕의 건축미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숙박시설 외에도 최대 350명까지 수용 가능한 연회장과 250명까지 수용 가능한 세미나실까지 완비돼 있다. 각종 기업 워크숍, 세미나, 포럼, 웨딩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상하농원은 파머스빌리지를 다양한 숙박형 체험활동과 연계할 계획이다.

객실은 전망이 좋은 언덕 위 경사면을 따라 배치하고 ‘농부의 숙소’를 모티브로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을 갖도록 지어졌다. 레스토랑은 농원과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층고를 높게 해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들었다. 각종 세미나, 농원과 연계된 체험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모임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농원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은선 이사는 “그동안 상하농원은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당일치기 방문객들이 많았으며, 파머스빌리지 완공으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기업들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0년까지 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SK플라즈마, 브라질에 2000만달러 혈액제제 공급

‘리브감마-에스앤주’ 공급자 선정

SK플라즈마는 브라질 정부의 2020년 혈액제제 입찰에서 면역글로불린 ‘리브감마-에스앤주’ (IVIG-SN)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2000만달러로 회사

설립 이래 최대 수출액이다.

리브감마-에스앤주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혈액제제다. 혈액제제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MRB에 따르면, 2016년 남미 면역 글로불린 시장 규모는 3천500억원 규모이며, 브

라질은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2015년 SK케미칼에서 분사한 혈액제제 전문 제약회사인 SK플라즈마는 2016년부터 페루, 도미니카, 파라과이 등 남미 시장에서 수출을 늘려왔다.

/이세경 기자